



16. 잡지사 편집장이 되는 길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현장 탐방 - 잡지사 편집장 ▪ 잡지사 편집장에 대한 이해 ▪ NCS를 통해서 본 잡지사 편집장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직업 전문가를 통한 잡지사 편집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잡지사 편집장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NCS를 통해서 잡지사 편집장으로 진로 수업 설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직업현장 탐방>

보통 이제 패션지라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들 패션지라고 있잖아요. VOGUE, ELLE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 잡지는 하이패션도 물론 다룹니다. 럭셔리 브랜드도 다루고, 근데 그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럭셔리가 과연 무엇이나? 럭셔리를 이제 저는 호사라고 부르거든요. 특히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상과 일상의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술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다 삶을 꾸미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탈 디자인이죠. 인생을 꾸미는 토탈 디자인. 그것을 다루는 게 저희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내용들입니다. 그건 특별히 룰이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이번 달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그것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야죠. 계절성도 좀 따지기도 하고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 뭐, 뭐, 뭐 이런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요번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거에 빠지다보면 너무 정보위주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책이, 그 재미가 없잖아요 책전체가 인포메이션이 돼버리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그런 것을 그 칼럼을 통해서 다루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9시에 출근해서 10시 6시 퇴근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마감 책은 마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기 기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은 야근하는 경우도 꽤 있죠. 편한 날도 있지만 의외로 편한 날도 있지만 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땐 또 야근도 해야 되고 그 열정이 꽤 필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힘들죠. 대기업들도 의외로 야근 많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꿈은 원래 사진가가 되는 거였고, 실제로 대학은 사진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공대를 나왔어요. 사진이 직업으로서 인정을 별로 받을 수 없는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반대에 의해서 공대를 갔는데 사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한 오년 걸렸어요. 그래서 대학원가서 사진전

공을 하고 잡지사에 취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도 한 1년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프로 사진가로서의 길을 걸었었죠. 사진가도 그렇게 수명이 길진 않습니다. 실제로. 일이 좀 떨어져요. 이상하게, 실력은 느는데 일은 떨어져. 사진을 찍다보니까 계속 책을 대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책 디자인에 관심이 가고 콘텐츠에 관심이 가고 아 책 만드는 게 참 재미있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한 마흔쯤 될 즈음에는 책 만드는 게 결국 저의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두 번째 직업인거죠. 성장해서 거기서 또 다른 갈래로 간 것뿐이지 완전히 다른 일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되고 약간 변화가 되서 어떻게 보면 좀더 큰판에서 좀 놀아보는 거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 출판사를 하게 된거죠. 출판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 공부가 다 되어 있었거든. 십 몇 년 넘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디자이너들하고도 친하고 에디터들하고도 친하고 그러다보니까 책 만드는 프로세스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긴 직원이 거의 열다섯 스무 명 됩니다. 사장 공부를 안 한 게 제가 약간 실수를 했었습니다. 사장공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회사라는 게 크지는 않지만 회계라든지 돈 문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공부를 안했던 게 제가 좀 후회가 되죠. 그래서 중간에 잠깐 회사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많은 공부를 했죠. 그때. 지금은 많이 안정돼가지고 저도 뭐 그럭저럭 사장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사를 만들고 사진을 하건 다 똑같습니다. 에디터를 하는 것도 똑같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 공부가 대학공부는 대학공부예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학부는 공대를 나왔지만 사실 인문학적 소양이 대단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흥미가 많았었고 특히 대학원 시절 동안 공부를 할 만큼 했어요. 저는 약간. 그러다보니까 모든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해지고 그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데 기본적인 공부가 안돼 있다면 일단 좀 거기서부터 벽에 부딪히죠. 일단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잡지라는 건 끊임없이 다른,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걸 다뤄야되는데 그게 자기 내적 호기심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 일 이잖아요. 피곤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중학생이라면 소설책 많이 읽고, 고등학생이면 최소한 철학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음악과 미술을 알아야 됩니다. 삶의 베이스가 되는 문화들의 뿌리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특별한 잡지들도 있어요. 뭐 CEO 이런 잡지에서 회사 사장들만 만나는 잡지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을 제외한, 그런 전문지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이 문화를 다루잖아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뭘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모르는데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 본인이 올바른 질문을 못하면 쓸 내용이 없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 할 얘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사장이 스트레스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한테 한 얘기를 또 해야 될 때가 사실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모자를 때,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좀 많아서 책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결과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았을 때, 그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아까랑 똑 같은 얘인데,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듣는 직원이 있을 때 진짜 기분이 좋고 책이 기분 좋게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책이 나왔을 때, 그 때가 보람이죠. 사실. 회사라는 게 단순히 월급 받고 일을 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회사는 직원을 성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직원은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서 알아듣는 직원이 기분이 좋다는 이유는 그 친구는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 일에 집중하고 있고 자기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대부분 사진 찍을 때 배우들 만났을 때가 사실 좀 흥미로운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실물을 봐서 제일 놀랐던 배우는 이제 이나영 같은 경우, 아니 이거 웬 별나라 공주님이. 웬만한 미인이라는 배우들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최민수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멋있는 비주얼을 갖고 있고 진짜 배우 같은 얼굴이었고 찍으면 그림이 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누르면 그림이 되는 스타일들, 아무리 즐겁게 일을 해도 사실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쉬운 방법으로 술을 먹는데 잠시 잊는 거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는 안 되고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면 실제로 완전히 다른데 몰입해야 되거든요. 전 낚시하고 테니스치고 오디오도 좀 듣고 음악도 좀 듣고 그리고 그게 제 취미생활이에요. 완전히 하루 동안 다른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그러면 술 먹은 거보다 훨씬 더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뭐 법조계나 의료계, 이쪽이 인기 직종인 이유는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수입이 보장이 된다. 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인기 직종이 된 건데 사진을 찍어서 제대로 먹고 산다고 표현할 수 있는 친구는 한둘 정도? 먹고사는 친구들과 못 먹고사는 친구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못 먹고 사는 친구들은 자기가 열심히 안하는 것을 모릅니다. 너무나 신기한데 자기가 열심히 안하고 있는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친구들은 실제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종이매체가 굉장히 빨리 사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버텨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콘텐츠를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책보는 게 훨씬 빠르게 이게 정보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우받는 느낌이 들고, 콘텐츠를 전체 분석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참 애매합니다. 사실, 예측 불가능 합니다 사실 지금은. 근데 아무래도 계속 종이 그쪽이 콘텐츠가 줄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전에는 그것을 책으로 완성했을 때 짜릿한 기분이 있었는데 만약 그게 이제 사라진다면 매체는 바뀌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난 이런 꿈을 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태도는 일관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저는 그냥 책 만드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경제상황이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 뭐 1년, 2년 뒤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계속 책 만드는 사람, 가끔 사진도 찍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사실, 진로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관심이 가는 게 분명히 몇 개 있을 겁니다.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누군가가 더 나한테 말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더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러다 둘이 사랑에 빠지면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 드릴게요.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젊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일을 노동으로 생각 안했으면 좋겠어. 진짜 자기가 그 일을 좋아하면 야근이 어디 있어요. 아이 내가 지금 만족이 안 돼서 이 자리를 못 떠나는데 도대체. 저는 절대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 성장은 끝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헌신하는 태도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NCS를 기반으로 한 직업탐구, 잡지사 편집장이 되는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잡지사 편집장, 멋지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영화 주인공이 또 떠오르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자 잡지사 편집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워크넷에 가서 검색하면 안 나오실 겁니다. 편집장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출판물 전문가 편집기자 잡지기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실 때 여러분이 항상 여러 가지 언어들로 단어들로 이렇게 조합해서 검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집장은 이렇게 이제 신문이나 잡지나 책이나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기 쉬운 지제 편집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 감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연예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 분야에 따라서 모든 걸 총괄하는 감독이라고 일종의 볼 수 있습니다 영화감독처럼, 편집의 모든 걸 총괄하는 부분을 편집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편집장이라는 일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잡지기자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사실 다 다룬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뭐 시사든 여성이든 장르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르겠죠. 여행이든 관련한 잡지들의 특정분야에 다루는 소속 되어 있는 기자들의 어떤 주간 월간 분기별로 또 이렇게 잡지마다 다 이렇게 다른데 그걸 기획하고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작성해서 가져오는 기사를 또 그걸 이제 고르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대체로 이제 편집장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취재하는 내용 그 다음 끝나고 나면 이게 또 바로 그 다음에 잠깐 쉬자마자 또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기재 기사 또 고정기사 새로운 이제 기획기사 이런 것들 하고 교정하고 또 협의하고 원고 청탁 발굴 이런 일들을 총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은 대체로 이제 잡지사마다 또 소속된 회사마다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상적인 또 직장하고는 조금 달라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이제 서로 다 자유롭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또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말에도 심지어 이제 밤에도 새벽에도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이제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학력을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전문대 졸에서 대학 졸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글쓰기도 잘해야 되지만 취재를 많이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화려한 좀 언변이라던 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 지 대인관계 능력이라던 지 감성 능력이라던 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인문사회 계열에 계신 분들이 많고 공학계열은 조금 적은 편인데요. 앞으로는 공학계열에도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IT분야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해당 지식이 없으면 글을 쓰기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티칼럼리스트아이티 기자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분야들도 갈수록 늘어날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전공으로 보면 대체로 통상적으로 문회 창작이나 방송연애나, 사회교육들 신문 방송학과 전통적인 학과죠? 이런 학과들도 있고 이제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사실 전공이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정보미디어, 정치외교, 심지어 기사학과 패션 또 전문기자일 경우에는 패션디자인학과 이런 것들 또 환경중심이라고 하면 환경학과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해당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넓게는 이제 경제경영학과도 선호하는 학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시대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되고 독자들, 왜 심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이 궁금해 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또 재미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재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비주얼한 요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미지나 이런 요소들도 상당

히 이제 독자를 유발하는 흥미요소를 유발하는 요소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감각적이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적성과 흥미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이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거 같은데요. 잡지 편집장들은 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또 쉽게 이제 서로 유가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은 작은 잡지 사는 사진, 촬영, 기획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또 나중에 방송국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 또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충훈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학 전문기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분야별로 또 갈 수 가 있고 늘 글을 접하다 보니까 단행본 기획자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직접 책을 쓰시기도 하고 평론이나 칼럼리스트로, 또 파워 블로그로도 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작은 잡지사지만 블로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대규모 방송국에 있는 기자들보다 더 맹렬하게 이름을 떨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NCS 분류기준에 따라서 잡지사 편집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분류로 보면 여러분들이 인쇄목제가구 공예를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중분류로 이제 인쇄출판이 되고 소분류로 이제 출판, 세 분류로 출판기획, 능력단위로 출판목표계획 수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능력단위 라는 게 아까 하나만 있는데 아니라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보시고 바로 검색을 해보시면 능력단위로 볼 수 가있고요. 능력단위 하나하나를 보시려고 하면 능력단위 하나하나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판목표계획수립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만하시면 여러분이 환경 분석이라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 잡지사라든지 그 분야에 있는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출판계획이 있고 또 편집디자인이 있고 편집이 있고 제작 공정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적출판이라든지 잡지출판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2014년 기준에 6만4천 명가량에 사업자 종사자가 있다고보입니다. 이에 대체로 콘텐츠 산업 안에 범위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흐름을 보여야지만이 좋은 잡지를 여러분이 운영할 수도 있고 입사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은데요. 능력단위를 보면 한 열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출판목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문화 콘텐츠에 출판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출판물의 기획이나 편집이나 제작이나 마케팅을 어떻게 하나갈지 각각의 목표를 제시하고 코디 네이팅 하는 역할을 편집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단위로 보면 우리가 이제 NCS는 지식 기술 태도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여러분이 갖춰야 될 지식은 뭐 출판문화 전반에 대한 법들도 아셔야 될 거 같고 콘텐츠산업에 대한 통계라든지 문화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기술로는 지식문화 콘텐츠 가운데서 출판물로 제작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죠 제작공정이라든지 문화 트렌드도 보셔야 될 거 같고 아마 태도로 는 대중사회에서 유행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유행하는 거 먹거리에서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슈를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즐겁고 그 시대 트렌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잘 캐치해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태도가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근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취재해 나가려고 하는 끈기 있는 태도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을 본 다라면 여러분이 이제 한 페이지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 가있기 때문에 출판 문화산업이라든지 학습모듈을 보시면서 트렌드를 분석하시고 그 전문분야에서 어떤 것 들을 요구하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NCS 능력단위로 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출판목표계획수립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판 아이디어도 이제 창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늘 출판회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판목표시장을 분석하고 고객들을 분석하고 어떤 기사들을 써 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저작권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여서 저작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문제하고 유능한 필자들, 인기 있는 필자들 잘 이끌어 오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판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능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출판마케팅 계획들 출판물 또 제작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 나가야 되니까 홍보능력, 이런 부분들이 NCS의 중요한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야에 출판물편집장이 되고자 한다면 이 능력을 갖춰 나가야 되는 요소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력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잡지사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큰 이제 잡지사에도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 별도로 이제 운영해 나가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모형으로 이제 내가 커리어를 개발 개 나갈 것 인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나가 보시면서 나간다면 좋은 출판물 편집장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아마 바로 편집장이라는 관리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기자역할에서부터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편집장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